천년의 맛과멋 전남
호남매일 tv
E-mail. ko930112@naver.com

호남매일

광주시 북구 우치로 649(생용동)
www.cinemapark.kr
시네마 파크 cinema park
광주자동차극장
TEL : 062-575-5717~8

제 5367호 2000년 7월 25일 창사 homae.co.kr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음력 4월 24일)

광주 풍암호수 원형보존 뒤집고 '부분매립' 논란

주민 반발에 시 원형보존 검토 불구 해법 못찾아

"지체시 1지구 특례사업 전체 영향…피소 가능성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주민요구대로 원형보존을 검토했던 광주시가 숙고끝에 기존안인 수심 · 수량 조정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풍암호수는 1956년 서창 일대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수 저수지로 지어졌다. 그러나 도심개발과 함께 대규모 주거 ·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심 속 대표 친수 공간으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심 내 각종 오염원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 녹조와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질은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6등급 수준이다.

지지부진하던 수질 개선 논의는 호수를 품은 중앙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광주시를 대신해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용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와 민간공원사업자는 서구 금호 · 풍암 · 화정동 일대 중앙공원 1지구사업 부지에 공원시설 224만59㎡ · 비공원시설 19만5456㎡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지의 8%에 해당하는 비공원 부지엔 총 2779가구 · 27층 규모의 아파트가, 공원 부지엔 풍암호수를 비롯한 8개 테마별 친수 공간이 들어선다. 사업은 공원 부지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 공원 부지는 사업자가 광주시에 기부채납, 시민에게 환원한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인 2020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준공일은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광주시와 민간공원 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풍암호수 수질 개선 · 정비 계획 수립에 나섰다.

광주시는 우선 수질 환경전문가 4명 · 공무원 4명 · 민간사업자 2명 · 농어촌공사 1명이 참여하는 풍암호 수질개선 전담팀(TF)을 꾸렸다.

TF는 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2019년부터 지난 해 9월까지 공식 회의(5회)와 실무자 회의(14회) 등을 거쳐 자연정화식 수질 개선안을 내놨다.

수위를 줄이고, 주변에서 끌어온 맑은 물을 보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TF 개선안대로라면 호수 평균 수심은 현재 2.8m(최고 수심 4.2m)에서 1.5m(최고 수심 2.5m)로 낮아진다. 매일 지하수 관정 등지에서 끌어온 맑은 물이 유입된다.

또 ▲호수주변 산책로 폭 현재 4m에서 8m로 확장 ▲빗물 배수시설 정비 ▲오염 발생원 숲 지대 장미원 이전 등도 개선안에 담겼다. 이대로 추진한다면 수질을 3급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대 주민은 개선안에 반대하며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기에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합세했다.

올해 2월 주민협의체는 8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풍암호수 원형보존 서명서를 광주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면적 · 수심 · 담수량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요구였다.

주민협의체와 면담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실패라 할 수 있는 만큼 주민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으로부터 특정 금액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이를 이용, 원형보존에 따른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난관에 봉착했다. 법률 검토 결과 법적 절차 등 정당성없이 현금 기부채납을 약속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의 또다른 서류 절차가 필요한 데 이 기간만 최소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이는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자칫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고심끝에 TF 개선안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주민협의체는 광주시가 원형보존안을 번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집행부는 "광주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동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주민에게 약속하고 협약까지 체결하자고 했는데, 입장을 뒤집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책회의를 열어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와 시장 간 면담에서 나온 시장 발언은 '나는 TF안이 가장 합리적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원형보존이나 현상유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주민 의견을 고려, 그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수질개선안을 도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질개선 사업이 지체되면 특례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소 등 여러 위협 부담이 커 기존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합리성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다음달부터 본격 철거

1 · 2단지 8개동 2025년 상반기 철거 예정

사고 건물 시스템비계 둘러 먼지 최소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동 철거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따르면, 현산은 이달 철거 사전 작업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간다.

현산은 타워크레인 7개 중 4개 설치를 마쳤다. 작업자 이동장치인 호이스트카도 각 8개 동에 하나씩 설치된다.

특히 붕괴사고가 난 201동엔 시스템 비계를 사방으로 둘러 낙하물 추락과 비산먼지 피해를 줄인다.

기둥과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은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박힌 줄톱으로 잘라낸다. 다른 구조물은 압축해 파쇄한다.

현산은 비산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와 함께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진기를 설치한다.

구조물 해체는 2개 업체가 맡는다. 은하수산업은 2단지, 코리아카코는 1단지를 담당한다.

1개 층을 철거하는데 약 2주가 걸린다. 철거는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정아이파크는 1 · 2단지를 합쳐 아파트 · 오피스텔 847가구 규모다.

/권형안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에서 8개동 전면 해체를 앞두고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자재 반입 작업 사진 /뉴시스

광주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속도

2024년까지 동구 구도심 인프라·서비스 구축

광주시가 동구 구도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과 전국 확산을 위한 2022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광주시는 RE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광주시 · 동구 · 광주도시공사 ·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등 민 · 관이 협력, 2024년까지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은 ▲교통 · 에너지 · 환경 · 안전 등 4개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와 연계한 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공간조성 등이다.

스마트 교통 서비스는 동구 내 26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설비를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현황과 주차정보 등 스마트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산 운영 중인 5개 자치구 스마트주차 정보를 연계, 통합 제공한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 충전 · 거래 거점센터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에 RE100 메가스테이션을 구축, 전기차(EV)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권 거래, 공급인증서(REC) 발급 지원 등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 환경 서비스는 페트(PET) · 캔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27대를 13곳에 설치,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포인트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 안전서비스는 동구 지역 22곳에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과 스마트폴을 설치해 시민 안전 · 실종자 발생에 신속 대응한다.

/조선주 기자